

논 단 / 자 료

단행본 수서 개선 방안  
- HKUL(HongKong University Library) 연수를 경험으로 -

김 화 택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목 차 >

- |                        |                         |
|------------------------|-------------------------|
| 1. 시작하는 말              | 4. 단행본 수서 개선 방안         |
| 2. 홍콩대학도서관 수서시스템       | 4.1 장서개발 활동 강화          |
| 2.1 현황                 | 4.2 주제별 구입도서의 불균형       |
| 2.2 도서 선정              | 4.3 비영어권 도서 구입 확충       |
| 2.3 장서개발 정책            | 4.4 외국도서의 Approval Plan |
| 2.4 장서의 주제 균형을 위한 노력   | 4.5 비도서 및 전자책 구입 확충     |
| 2.5 Approval Plan      | 4.6 분관 장서의 특성화 추구       |
| 2.6 전자 매체 및 비도서 자료     | 5. 맺는 말                 |
| 2.7 Standing Order     |                         |
| 3. 서울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수서 현황 |                         |
| 3.1 2009년 단행본 구입 현황    |                         |
| 3.2 신분별 구입 현황          |                         |
| 3.3 대학별 구입 현황          |                         |
| 3.4 용도별 구입 현황          |                         |

## 1. 시작하는 말

본 원고는 필자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 동안 홍콩대학도서관(University of HongKong Library)에서 연수한 내용을 주로 단행본 수서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또한 홍콩대학의 수서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도서관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당초 필자의 연수 목적은 ‘연속간행물 시스템과 장서 개발’이라 학술지 구독 계약 및 전자자료 컨소시엄과 관련된 업무의 연수 예정이었지만 필자가 6주간 상주한 곳이 장서개발팀(Collection Development Team)의 사무실이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단행본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단행본 수서업무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홍콩대학은 2009년 Times 선정 세계 24위의 대학으로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학의 국제화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대학의 모든 부분에서 국제화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으며, 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도서관의 조직, 구성원, 장서,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외국도서관을 체험하는 느낌이었다.

홍콩대학도서관(이하 HKUL로 명칭)의 시스템은 주로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모방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관장을 포함한 사서들이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주요 업무를 대부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관장 Dr. Furgerson은 미국인으로서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Columbia University Library의 사서로 근무하다가 홍콩대학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였고 부관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Australia University Library 사서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HKUL만이 아니라 홍콩의 주요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미국인 또는 유럽인 사서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콩지역의 대학도서관이 미국 대학도서관 시스템을 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특히 HKUL은 미국의 여러 대학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세미나 및 기타 협력 활동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필자의 연수기간동안 가장 크게 와 닿은 부분은 HKUL의 모든 시스템이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 문서화되어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업무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각 업무별로 명문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위 업무별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침과 업무 매뉴얼에 의해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자기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 업무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부서간의 친밀한 협력 체계 등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 2. 홍콩대학도서관 수서 시스템

### 2.1 현황

HKUL의 총 장서 규모는 서울대도서관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장서는 서울대도서관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인 만큼 서양도서와 중국어 도서를 대등한 비중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책 구입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Super E-book Project를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도서는 대부분 권소시엄으로 구입하고 있고 연간 구입 도서의 수는 약 30만권이 넘는다.

[표 1] 2008-2009년도 SNUL과 HKUL 단행본 구입 현황

구 분	HKUL		SNUL	
	인쇄	전자	인쇄	전자
소장(책/종)	2,645,696	1,573,054	4,080,828	248,251
2009년 구입	81,134	259,773	32,137	4,000
금액(US\$)	3,178,821		1,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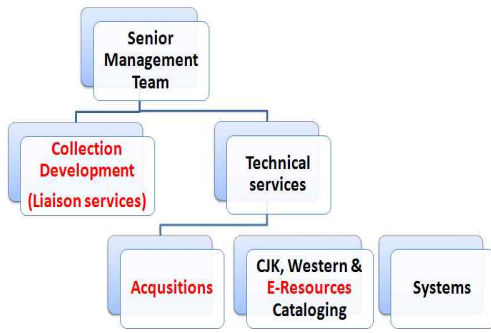
### 2.2 도서 선정

HKUL의 수서 업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온라인 신청에 의한 도서 구입과 다른 하나는 주제 전문가에 의한 선정 방식이다. 서울대도서관과 달리 이용자 신청에 의한 도서 구입보다 주제전문가에 의한 도서 선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HKUL은 CDT(Collection Development Team)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장서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제전문가들로 구성된 CDT는 교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서를 추천받고 학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왕성한 장서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CDT란 장서개발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조직으로 11명의 주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주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주제 분야를 총괄하는 팀장 외에 10개의 단과대학을 각 1명씩 전담하여 도서 구입의 계획부터 선정, 구입, 평가까지 수서의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 조직표에서 보듯이 CDT는 Acquisitions(수서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CDT의 역할을 요약한 내용이다.

- 교수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
- 장서 정책 개발, 예산의 배정
- 장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점 제공
- 선정, 수서, 제본 및 보존 등의(자료의 구입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 조정 역할
-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출판사 및 벤더와의 협력 활동

이상과 같이 CDT의 목표는 대학에 필요한 최적의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장서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HKUL은 저널 구독방식을 인쇄에서 e-only(전자저널)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인쇄책과 전자책의 구입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대학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등 거시적인 장서 개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는 CDT의 주제별 담당자 이름이다. 홍콩대학의 10개 단과대학을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씩의 사서를 지정하였는데 그들은 해당 주제 분야의 최소 석사 과정 이상을 전공한 Faculty 멤버이다.

[표 2]의 아래 부분은 비주제 수서 전문가로서 자료의 형태별, 언어별, special collection, 참고자료, 전자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 자료실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주제별로 그리고 자료 유형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이유는 해당 분야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며,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장서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표 2] CDT 및 자료별 도서 선정가

Faculty/Department/Area	Name	
Architecture	Annabelle Pau	University Library
Arts	Lucinda Wong	"
Business & Economics	Gayle Chan	"
Social Sciences	Irene Fung	"
Engineering, Science	Alice Wong	"
Dentistry	Sam Lee	Branch Library
Education	Irene Fung	"
Law	Irene Shieh	"
Medicine	Julia Chan	"
Music	Lucinda Wong	"

Non-Faculty	Name	
CUPEM	Gayle Chan	CDT 팀장
Audio Visual	Ku Kam Ming	
Western language	Tina Yang	
CJK	Angela Ko	
Hong Kong Collection	Iris Chan/Edith Chan	Special Collection
Reference	Rebecca Yeung	
Electronic Resources	Janny Lai	

2.3 장서개발 정책

HKUL은 장서개발 정책을 명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업무 수행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수립하고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장서가 무엇이며 어떤 원칙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지와 같은 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 도서관은 이러한 자관의 성격에 맞는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공지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서개발의 목적, 도서관의 사명, 그리고 일반적인 선정 기준, 장서개발의 주체 및 역할, 도서 구입 절차, 교과 과정 도서 신청 기준, 도서 관리 및 복본·폐기 정책, 주제별 선정 기준, 마지막으로 비도서자료 구입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전자 환경을 반영하듯이 일반자료와 전자자료로 구분하여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일반자료의 정책만을 소개 하고자 한다.

[표 3] HKU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itle	Sub Title	
<b>Introduction</b>		
<b>University Library Environm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ssion statement</li> <li>• Collection development objectives</li> <li>• Purpose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li> </ul>	도서관 사명 장서개발 목표
<b>General Selection Criteri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ection guideline</li> <li>• language</li> <li>• Choice of format</li> <li>• Formats and materials not selected</li> <li>• Collecting levels and criteria</li> </ul>	선정 기준 언어별 선정 기준 형태별 선정 기준 비선정 기준 수준별 선정
<b>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collection development</li> </ul>	장서개발 역할 및 책임

<b>Acquisition Proc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thods of acquiring materials</li> <li>• Selection aids for library resources</li> <li>• Acquisition Procedures</li> <li>• Form</li> <li>• Library resources fund</li> </ul>	자료 수집 방법 수서 절차 신청양식 예산 관리
<b>Library Impact statement for New courses/program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brary impact statements</li> <li>• Forms</li> </ul>	도서 신청 및 평가 신청양식
<b>Collection Maintenance Guidelin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plication policy</li> <li>• Guidelines for multiple copies</li> <li>• Purchase of monograph</li> <li>• Gift and exchange policy</li> <li>• Replacement policy</li> <li>• Weeding policy</li> </ul>	복본 구입 정책 복본 구입 기준 단행본 구입 기증/교환 정책 분실 대체 폐기 정책
<b>Subject Policy Statement</b>		주제별 선정 기준
<b>Specific Format Polici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 visual materials</li> <li>• HongKong collection</li> <li>• Reference collection</li> <li>• Serials collection</li> </ul>	음영자료 홍콩 관련 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2.4. 장서의 주제 균형을 위한 노력

HKUL은 중앙도서관과 6개의 분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서울대도서관처럼 중앙도서관과 분관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CDT는 자신의 분야에 도서비 수입 및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데 이유는 대학별로 형평성 있는 도서 구입과 주제별 특성화된 도서 구입을 위해서이다.

또한 대학별 예산 배정 외에도 참고도서, 비도서, 전자도서, 특수자료, 고문헌 등 특정한 주제가 없거나 특별한 유형으로 발행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하고 구입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는 주로 해당 자료실의 사서가 자료를 선정하여 장서개발팀이나 수서계로 구입 요청한다.

[표 4]는 2009년에 CDT에서 각 대학별 예산을 배정한 내역이다.

[표 4] 2009년 CDT에서 각 대학별 예산 배정 내역

대학	학과	금액 (HK\$)	비율(%)
Architecture	Architecture	1,243,550.00	7.5
	Real Estate & Construction		
Arts & Humanities	Chinese	2,973,689.00	18
	Comparative Literature		

	English		
	Japanese Studies		
	Linguistics		
	Music		
	Philosophy		
Business & Economics	Business	830,000.00	5
	Economics & Finance		
Dentistry	Faculty of Dentistry	470,003.00	2.8
Education	Education/Curriculum Studies	1,254,480.00	7.6
	Speech & Hearing Sciences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628,425.00	18.1
	Computer Sc. & Info. Sys.	598,500.00	
	Electrical & Electronic Engg.	688,275.00	
	Ind. & Mfg. Systems Engg.	448,875.00	
	Mechanical Engineering	508,725.00	
	Medical Engineering Program	119,700.00	
Law	Faculty of Law	997,675.00	6.1
Science	Chemistry	2,776,111.00	17
	Earth Sciences		
	Mathematics		
	Physics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Statistics & Actuarial Sci.		
Social Sciences	Politics & Public Admin.	1,103,550.00	6.7
	Psychology		
	School of Geography		
	Soc. Work & Soc. Admin.		
	Sociology		
Interdisciplinary & Non-Faculty	China General	1,851,132.00	11.2
	CUPEM		
	Human Performance		
	Interdisciplinary Approval		
	Journalism		
	Library Science		
	SE / South, E. Asia		
합계		16,492,690.00	100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대학별 또는 필요한 경우 학과별로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CDT는 각 대학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른 대학과의 조정 작업을 통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KUL은 장서의 주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대학 또는 학과마다 해당 주제코드를 병기하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학과는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문간 융화 현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다.

[표 5]는 인문대학의 각 학과와 그에 일치하는 해당 주제코드의 예이다.

[표 5] 인문대학 각 학과와 일치하는 주제코드

Arts & Humanities	DDC					LC		
General-Arts and Humanities	001	800	999	070	079	AS	AS	AS
	001	100	299	100	299	AZ19.2	AZ999	
	001	400	499	300	399	AC	AC	AC
	001			800	999			
Fine arts	700	700	799	900	999	N	NX	N
	700	069	069	069	069	CD5001	CD6471	CD5001
	700					AM	AM	AM
	700					Z40	Z115.72	
Geography	910	910	919	660	669	G	G	G
	910			700	729	GA	GC	GA
History	909	930	999	600	639	C	C	C
	909	900	909	670	679	D	D	D
	909			730	779	E	E	E
	909					F	F	F
Languages & Linguistics	400	400	499	800	809	P	PZ	P
	400					PL1001	PL2245	PL1001
Literature	800	800	899	810	889	P	PZ	P
	800					PL2250	PL3208	PL2250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8951	495.1	495.1	802	802	PL1001	PL2245	PL1001
	8951	895.1	895.1	820	859	PL2250	PL3208	PL2250
Comparative literature	809	809	809	819.9	819.9	PN851	PN884	PN851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820	420	429	805.1	805.1	PR	PR	PR



	820	810	829	873	874	PS	PS	PS
Music	780	780	789	980	989	M	MT	MT
Philosophy	100	100	149	100	169	B	B	B
	100	160	199			BC	BJ	BJ
Religion	200	200	299	200	299	BL	BX	BX

## 2.5. Approval Plan

예전에 서울대도서관에서도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잠시 운영하다 중단된 Approval Plan에 의한 도서 구입을 HKUL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pproval Plan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주제 분야를 Profiling하여 대행사 측에 사전 등록해두면 대행사 측에서 해당 분야의 도서가 출간됨과 동시에 도서를 보내고 일정기간 내 취소 의사가 없을 경우 선정된 도서로 취급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HKUL은 세계 최대의 영미권 도서 전문대행사이며 전 세계 약 50%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YBP를 통해서 Approval Plan을 시행하고 있다.

HKUL의 Approval Plan 절차를 보면, 우선 학과별로 주제 분야 Profile을 신청 받아 YBP에 등록해두었다가 해당 분야 도서가 발행되면 YBP에서 1주일 내에 도서를 배송하게 되는데 매주 월요일에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송된 도서는 2주 동안 도서관 수서실에 비치하여 학과별로 도서 전담 교수 또는 원하는 교수 누구든지 도서의 내용을 살펴본 후 구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주제에 맞지 않을 경우 2주일 내에 취소할 수도 있다.

Approval Plan을 통해 HKUL에서 구입하고 있는 도서비는 전체 도서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들의 연구용 도서는 주로 Approval Plan을 통해 구입되고 있다.

Approval Plan을 통해 HKUL이 누리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정가보다 평균 약 15%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 대행사에 등록하는 주제별 Profile을 교수들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전공분야에 가장 적합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다.
- 도서의 발행과 동시에 1주일 내에 도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어 빠른 도서 입수가 가능하다
- 도서와 함께 보내지는 E-mail 형태의 서지정보를 통해 교수들은 도서를 직접 보지 않고도 도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수서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된다.

2.6. 전자 매체 및 비도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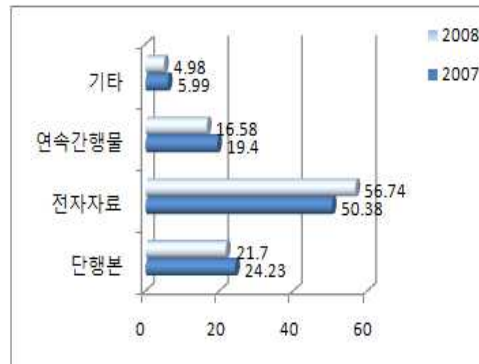
최근 전통적인 인쇄형태로 발행되던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인쇄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다. 특히 학습 및 교육, 교양, 오락 등의 DVD 자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간단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 및 판매되고 있다.

HKUL은 이러한 최근의 정보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 변화로 인해 장서개발 및 수서 정책에 서도 인쇄자료와 더불어 Web 기반의 온라인자료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인쇄 자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전자자료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자료구독 예산의 50% 이상을 전자자료 구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조금씩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표 6] HKUL 도서비 집행 추이

구분	2007(%)	2008(%)	증감
단행본	24.23	21.7	-2.53
전자자료	50.38	56.74	+6.36
연속간행물	19.4	16.58	-2.82
기타	5.99	4.98	-1.01
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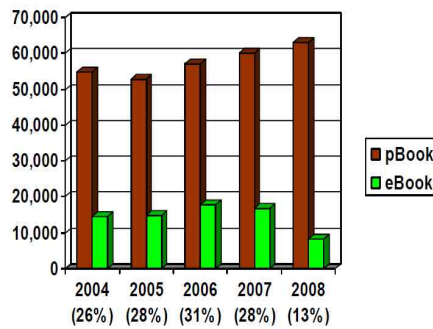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인쇄책과 전자책 발행량을 보면 매년 전자책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HKUL도 최근 기존의 인쇄책을 전자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며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자책은 아래와 같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 인쇄도서보다 저렴한 가격
- 무제한 동시 이용
- 관리 공간 불필요
- 손상 또는 분실의 위험 없음
- 인쇄도서보다 많은 이용 기대
- 배송 비용 및 수수료 절감

pBook-eBook Profiling



아래 표는 HKUL에서 현재 구독중인 전자책(패키지) 목록이다.

Table 1 Core fee-based e-book collections at HKUL

Collection name	Holdings	Board subject	Usage	
			Jun 05	07/04-06/05
Apabi eBook	44,831	Multi-disciplinary	N.A.	N.A.
Books24x7	4,331	Business, engineering	1,841	24,853
China Doctor/Master's Dissertations Databases	80,000	Multi-disciplinary	2,578	41,433
Early English books online	71,935	Arts & humanities	428	2,925
ebrary	19,200	Multi-disciplinary	2,605	38,939
Eighteen century collections online	129,833	Arts & humanities	333	3,724
ENGnetBASE: engineering handbooks online	267	Engineering, technology	N.A.	N.A.
Early American imprint, series I & II	36,302	Arts & humanities	N.A.	N.A.
Knovel: scientific and engineering databases	623	Science, engineering	295	3,745
netLibrary/CCDMHK consortium	16,527	Multi-disciplinary	3,196	55,768
InterLex past masters	373	Philosophy, economics, political science	15	238
ProQuest dissertations/Digital dissertation consortium	37,988	Multi-disciplinary	3,582	31,957
Safari tech books online	370	Engineering, technology	323	4,385
Superstar digital library	281,000	Multi-disciplinary	N.A.	N.A.

## 2.7. Standing Order

매년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할 도서를 해마다 체크하여 일일이 재 구독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하여 Standing Order 리스트를 마련하여 출판사에 등록하면 매년 자동으로 renewal 되어 주요 학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입수할 수 있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HKUL에서는 Year book, Set, Advanced Series, Conference Proceedings, Awards Series 등의 도서를 Standing Order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래는 HKUL의 Standing Order 도서 목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인문학분야에서는 Year book 위주로 과학기술분야는 Advanced Series와 Proceedings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LIST OF TITLES CURRENTLY ON STANDING ORDER<sup>4)</sup>  
(Excluding Music titles)<sup>4)</sup>

20 Aug. 2003<sup>4)</sup>

MAIN ENTRY	PUBLISHER	SUPPLIER	LOCATION	FUND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conomics, finance & management, v.2- (Only v.1, 1994 published as at 5/11/02.) <sup>4)</sup>	JAI Press	Blackwell North America	GL	ss11 <sup>4)</sup>
American literary scholarship : an annual... 1994- 2000 ed. received on 09_08_02 <sup>4)</sup>	Duke University Press	Blackwell North America	REF	1030 <sup>4)</sup>
Atlas of historical county boundaries. 1993- (S7156072 OR.BS1/B6 1/10/2001) <sup>4)</sup>	Simon & Schuster	Blackwell North America	REF	nf84 <sup>4)</sup>
Bernstein, Ronald Handbook of rent review. <sup>4)</sup> Service 34 (Oct. 2001) received on 09-04-02 <sup>4)</sup>	Sweets & Maxwell	B.H. Blackwell	GL	ar59 <sup>4)</sup>
Bone and mineral research, v.5- (v.8, 1994 published as at 5/11/02) <sup>4)</sup>	Elsevier	Martinus Nijhoff	ML	md00
Boswell, James, 1740-1795. James Boswell's Life of Johnson : an edition of the original manuscript (4 v.) <sup>4)</sup> (v.1-2 I/L at 10/4/2000) <sup>4)</sup>	Edinburgh Univ. Press	B.H. Blackwell	GL	nf68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46 <sup>th</sup> ed. 2001 received on 27_08_01 <sup>4)</sup>	Bowker	B.H. Blackwell	REF	nf68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II, (1940-1945) <sup>4)</sup> (Order completed) <sup>4)</sup>	Univ. Pubn. of America	Univ. Pubn. of America	GL	nf68 <sup>4)</sup>
British performing arts yearbook, 1999/2000- 2002/2003 (15th ed.) received on 16_10_02 <sup>4)</sup>	Rhinegold Publishing	B.H. Blackwell	Music	at08 <sup>4)</sup>

### 3. 서울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수서 현황

#### 3.1 2009년 단행본 구입 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대도서관에서 신청한 책과 구입 금액은 아래와 같다. 약 4만 책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국내서는 외국서에 비해 약 2배가 넘었다. 하지만 외국서는 기본 1권을 국내서는 기본 2권을 구입하므로 실제 구입 종수는 국내서와 외국서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한 도서 중 취소된 도서가 약 17% 되는데 국내서에 비해 외국서의 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질 및 절판 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 2009년 도서 구입 현황

	신청 수	취소 수	구입 수	금액	취소사유	비율
국내서	28,926	2,689	26,237	462,008	품질/절판	61%
외국서	16,564	4,080	12,484	1,124,908	복본	12%
동양서	2,309	759	1,550	104,671	상한액 초과	9%
계	47,799	7,528	40,271	1,691,587	기타	18%

#### 3.2 신분별 구입 현황

신분별로 구입 현황을 보면 국내서와 외국서를 합쳐 전체적으로 석·박사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교수, 학부생, 직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서와 외국서를 별도로 구분하면 외국서의 경우 교수의 신청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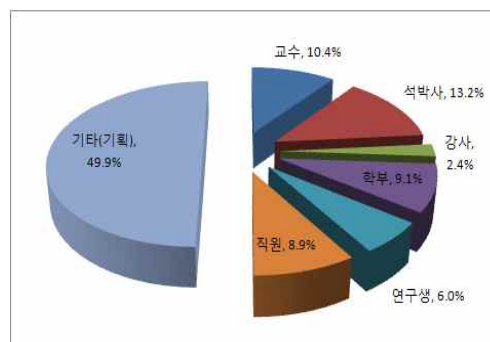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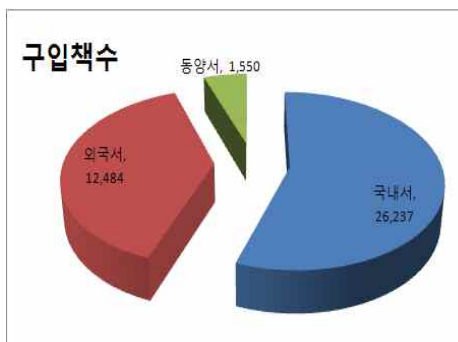
학부생의 경우 전체 구성원 수에 비하여 신청자 수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생의 특성상 국내서 신청도서가 많은데 국내서는 신간이 발행됨과 동시에 기획수서에 의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 이용자가 신청하기 전 이미 신간 도서가 입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교수의 신청 도서 비율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도서관의 장서가 교수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들의 도서 신청 창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서를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서울대도서관의 장서가 그에 걸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8] 신분별 구입 현황

(단위 : 신청자 수)

구분	교수	석박사	강사	학부생	연구생	직원	기타(기획)	계
국내서	811	2,601	259	3,094	1,212	2,917	15,343	26,237
외국서	2,739	2,415	640	522	1,108	626	4,434	12,484
동양서	627	308	68	63	114	40	330	1,550
계	4,177	5,324	967	3,679	2,434	3,583	20,107	40,271
비율(%)	10.4%	13.2%	2.4%	9.1%	6.0%	8.9%	49.9%	100.0%



### 3.3 대학별 구입 현황

대학별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대학별 도서 구입 현황

도서별 대학명	외국서			국내서		
	구입도서(책)	금액(천원)	비율	구입도서(책)	금액(천원)	비율
인문	2,868	195,412	5.9%	1,432	27,469	17.4%
사회	1,104	102,097	5.7%	1,437	26,110	9.1%
자연	784	89,651	1.4%	517	6,684	8.0%
공학	698	89,639	4.2%	1,242	19,350	8.0%
경영	373	55,400	1.3%	417	5,951	4.9%
법과	756	95,423	11.4%	1,937	52,878	8.5%
음악	32	2,810	0.4%	107	1,654	0.2%
미술	131	8,125	0.9%	232	4,096	0.7%
약학	65	7,813	0.5%	156	2,377	0.7%
의학	48	7,636	0.5%	132	2,314	0.7%
치의학	78	13,492	0.0%			1.2%
농학	515	74,479	3.4%	1,012	15,652	6.6%
사범	772	60,246	2.6%	931	12,104	5.4%
생활	99	8,693	0.8%	243	3,799	0.8%
국제	252	20,546	0.4%	108	1,756	1.8%
간호	1	29	0.1%	40	567	0.0%
보건	10	677	0.1%	17	407	0.1%
수의학	127	18,250	0.4%	104	1,938	1.6%
행정원	110	8,859	0.4%	94	1,617	0.8%
환경원	133	10,532	0.5%	134	2,310	0.9%
기타(기획)	3,528	255,099	59.1%	15,945	272,966	22.7%
합 계	12,484	1,124,908	100.0%	26,237	461,999	100.0%

대학별 예산 집행은 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 대학별로 균등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9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대학별로 구성원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령에 의한 도서 구입 충족요건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도서를 확충하여 대학의 규모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서 구입 비율에서 자연대학의 경우 1.4%, 약학대학 0.5%, 의과대학 0.5% 등은 해당 대학들의 학술지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지나치게 부족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3.4 용도별 구입 현황

서울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강의에 필요한 도서의 구입, 다음은 사서에 의해 구입 하는 기획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신청에

의한 희망도서 구입 방식이다.

[표 10] 용도별 도서 구입 현황

구분	강의도서	기획도서	희망도서	계
국내서	105	15,327	10,805	26,237
외국서	436	5,151	6,897	12,484
동양서	272	374	904	1,550
계	813	20,852	18,606	40,271
비율	2.0%	51.8%	46.2%	100



2009년의 경우 기획도서와 희망도서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언어별로 구분할 경우 국내서는 기획수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외국서는 희망도서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서의 경우 신간도서가 발행됨과 동시에 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출판정보에 의한 사서의 기획수서 비중이 높다. 외국서의 경우 광범위한 신간 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기획수서보다 교수나 학생들의 신청에 의한 도서 구입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4. 단행본 수서 개선 방안

##### 4.1 장서개발 활동 강화

###### (가) 장서개발 지침 마련

서울대도서관의 단행본 구입비용은 연간 약 1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장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재는 도서관내 단행본 수서계에서 해당 업무를 최소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4명이 매일 신청 도서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현실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대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누구를 위해 사야 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야할 것인지? 등 도서를 구입하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서개발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상세하게 수록한 명문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담당자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 방법도 달라질 것이며 일관성 없는 도서 구입 정책으로 도서관의 장서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HKUL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장서개발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들을 명문화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수서를 담당하거나 자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직원들은 이 지침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장서개발 활동 주체의 다양화

서울대도서관의 수서업무는 주로 단행본 수서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를 선정하고 예산을 관리, 조정하고 장서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등 장서개발의 전반적인 활동을 단행본 수서실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출판 도서와 다양한 유형으로 발행되는 수많은 매체들에 대한 정보를 한 부서의 소수인원이 조사하고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령,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할 때 주제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야 할지? 매체별로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도서와 비도서의 구입비는 어떻게 배분할지? 일반도서와 참고도서의 구입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타 전자자료의 구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한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도서관의 경우 학과전담 연구지원실과 여러 유형의 자료실이 있다. 따라서 주제별 예산 계획이나 장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지원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자료 유형별로는 각 자료실 즉, 단행본자료실, 기초교육정보실, 영상자료실, 비도서자료실, 고문헌자료실의 담당자와 수서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하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장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수와 도서관간의 중개자로서 대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연구지원실은 각 대학별로 liaison 사서 12명이 각각의 대학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연구지원 활동과 이용자 교육에 치우친 연구지원실의 업무를 장서개발 활동으로 확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liaison 사서가 직접 도서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주제 분야에 대한 출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서 담당 직원에게 조언이나 추천을 하여 수서실에 부족한 주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서 liaison 사서는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최근 온라인 출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쇄자료와 온라인자료의 도서 구입 비율을 배정한다거나 서울대도서관의 취약한 부분의 자료를 찾아 해당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좀 더 거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외국 대학들은 liaison 사서들의 장서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2 주제별 구입 도서의 불균형

서울대도서관에서 구입한 책과 대출한 책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년(2008-2009년) 동안의 주제별 구입 책 수와 대출 도서 수를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다.



[표 11] 주제별 대출 책 수와 구입 책 수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계	
대출 책 수	2008	43,164	49,084	18,574	126,639	24,473	51,246	57,974	69,338	118,102	57,864	615,498
	%	7.0	8.0	3.0	20.5	4.0	8.3	9.4	11.2	19.2	9.4	100
	2009	39,387	47,150	17,303	119,614	23,625	49,557	56,793	54,144	110,260	54,626	572,459
	%	6.9	8.2	3.0	20.9	4.1	8.7	9.9	9.5	19.3	9.5	100
구입 책 수	2008	774	1,705	827	7,402	921	2,574	3,911	3,500	3,326	2,277	27,217
	%	2.8	6.3	3.0	27.2	3.4	9.5	14.4	12.9	12.2	8.4	100
	2009	639	1,716	687	4,817	446	954	2,015	1,660	2,270	1,421	16,625
	%	3.8	10.3	4.1	29.0	2.7	5.7	12.1	10.0	13.7	8.5	100

※ 2009년 통계는 2009년6월말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로 전체 수치가 아님.

[표 11]을 보면 주제별 대출 책 수는 2008년과 2009년을 비교 했을 때 큰 차등이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제별 구입 책 수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우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이용자의 구입 신청도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도별로 구입한 도서의 주제 분야별 차이가 큰 이유는 결국 주제별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별로 대출 도서의 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찾는 주제 비중은 매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의 구입도 주제 비중에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또한 그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으로 배정하고 있는 도서구입 예산을 각 단과대학 주제별로 배정함으로써 대학별 자료 구입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별 예산 배정은 단순히 교수와 학생 수에 의한 방법보다는 학술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4.3 비영어권 도서 구입 확충

서울대도서관에서 2009년에 구입한 외국도서는 영어권 도서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기타 언어권 도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2009년에 이용자가 신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서 중 여러 가지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고 취소된 도서를 언어별로 조사해 본 결과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도서는 50% 정도 내외의 낮은 입수율을 보이고 있다. 독어나 불어 등의 언어도 영어권 도서의 95% 입수율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2] 언어별 도서 구입 현황

항목	신청 책수	취소 책수	구입완료	취소율(%)	입수율(%)
Korean	25,126	2,136	22,674	8.50	91.50
Chinese	870	184	676	21.15	78.85
Japanese	760	175	577	23.03	76.97
English	11,571	596	10,726	5.15	94.85
French	509	87	417	17.09	82.91
German	558	71	460	12.72	87.28
Spanish	255	116	139	45.49	54.51
Russian	61	12	49	19.67	80.33
Italian	30	16	14	53.33	46.67
서지정보 불명	5,851	4,561	288	95.00	5.00

입수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언어권의 출판사 및 대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출판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소극적인 판매방식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유럽 등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서를 대행하는 국내 업체의 부족으로 도서관이 해외 출판사와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발행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류 구비 등 국내 계약법의 까다로운 적용으로 구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영어권 이외의 비영어권 도서 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계약법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외국 대행사측에 서울대도서관의 계정을 만들어두고 계약서류 없이 credit으로 도서를 구입 한다든지, 기관 카드를 통한 대금 지불 방식의 도입 등 외국에서 자료 구입 시 통용되는 계약 방식의 도입이다.

특히 학회나 비상업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더욱 구입하기 어렵고 결제 방법 또한 온라인 결제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 구입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계약 방식도 하루빨리 마련하여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이나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 중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도서는 중고 재고가 있을 경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서 구입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중고도서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4 외국도서의 Approval plan 방식 구입

현재 서울대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주로 희망도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이 많은 주제 분야의 도서는 다양한 도서 구입이 가능하나 신청이 부족한 주제 분야는 핵심 도서마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발행된 지 오래된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상당

수의 도서는 절판 또는 품질되어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외국도서는 신간 보다 발행된 지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구간도서도 많이 신청하고 있다. 2009년에 이용자들이 신청한 외국 도서의 발행 연도를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출판 연도별 도서 입수율

구 분	1970-90	1991-99	2000-05	2006-08	2009	계
신청	452	1,369	3,283	5,282	2,098	12,484
취소	848	705	844	1,059	524	4,080
계	1,300	2,074	4,127	6,341	2,722	16,564
% (구입율)	34.8	66.0	79.5	83.3	81.8	75.4

[표 13]에서 보듯이 구입 신청한 도서 중 최종적으로 구입한 도서를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발행년이 오래 경과한 도서일수록 입수(구입)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년이 경과할수록 재고가 없어 도서 구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신간 발행 도서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누락하지 않고 적시에 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신간도서를 가장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Approval Plan에 의한 수서이다. Approval Plan은 학과(부) 교수들의 관심 주제 분야를 주제 키워드나 주제코드로 작성하여 대행사나 출판사에 사전에 Profiling하여 등록해두면 대행사에서는 신간이 발행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도서를 도서관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서는 일일이 출판정보나 출판사 목록 등을 구하여 조사할 필요 없이 최종 선정을 결정하면 된다.

2009년에 서울대도서관에서 구입한 외국서 중 신간 도서는 3,000여종이 넘지 않았다. 따라서 신간 도서와 구간도서의 구입 금액을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신간의 경우 Approval Plan으로 구입하는 것이 양질의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신간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Approval Plan에 의한 도서 구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pproval Plan은 주요 신간 도서를 폭넓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사전 예약 방식에 따른 도서 가격 할인 효과도 있으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4.5 비도서 및 전자책 구입 확충

최근 정보 환경의 변화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도 이전의 도서 중심에서 비도서 등 다양한 자료의 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비도서 자료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비도서 구입을 위해 상당액의 예산을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도서관은 아직까지 도서 형태의 자료에만 치중하고 비도서 자료의 구입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도서관의 비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실, 비도서자료실(M/F자료, 신문자료, 국제기구자료 등)에 비도서 구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도서자료도 자료의 일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서와 대등하게 출판정보 조사와 장서개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대학의 비도서 구입 예산이 전체 자료 구독 예산의 최소 5%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도서관은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14]는 주요 외국대학 도서관의 비도서 구입 현황이다.

[표 14] 주요 외국 대학 도서관의 비도서 구입 현황

기관명	단행본(책)	연속간행물(중)	비도서(점)	총 자료구입비(천원)	비도서(%)
CAL. BERKELEY	8,272,940	10,103,565	1,339,357	19,715,862	6.8
COLUMBIA	6,201,339	13,564,480	1,531,873	22,247,648	11.2
CORNELL	6,336,853	7,830,051	599,373	15,012,671	5.6
HARVARD	10,599,472	9,075,380	9,948,589	29,677,074	33.7
YALE	11,120,178	6,473,495	16,348,796	33,942,469	48.2
HONGKONG U	3,178,821	8,647,259	586,304	12,412,384	4.7
SEOUL NU	1,295,000	5,432,451	50,000	6,777,451	0.7

※ 비도서에는 전자책, Computer File, M/F, CD, DVD, 악보, 지도 등의 자료 포함

최근 e-Book의 급속한 성장과 보급은 대학도서관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신규로 e-Book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인쇄책을 e-Book(전자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HKUL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대형 상업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e-Book을 패키지 형식이나 날권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간혹 Paper-book과 e-Book을 동시에 구입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도서관도 Net-Library나 Safari 등의 일부 패키지 e-Book을 구입하고 있으나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발행도서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상업출판사에서는 신간이 발행됨과 동시에 대부분 e-Book으로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어 인쇄본으로 발행된 학술 도서의 약 80% 이상이 e-Book으로도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e-Book 출판 시장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추세이다. 신간 도서의 경우 e-Book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출판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인쇄본으로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e-Book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양질의 e-Book 구입

을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대도서관도 지난 2006년에 국내 e-Book을 한번 구입한 이후로는 추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e-Book 구입은 아직까지 시장 환경을 지켜보며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외 e-Book은 학술적인 가치 및 이용 편의성, 저렴한 비용, 관리의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구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대도서관도 e-Book 구입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e-Book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5]는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 중인 e-Book 과 향후 추가로 구입해야 할 현황이다.

[표 15] e-Book 구입 자료 및 추가 구입 필요 자료

(단위 : 천원)

현재 구입 중			추가 구입 필요		
제목	수록종수	구독금액	제목	수록종수	구독금액
Net Library	18,500	9,600	Springer	4,000	45,000
Safari	1,300	7,000	Elsevier	400	50,000
OUP(Reference)	180	3,600	Wiley-Black	500	50,000
LION	223	1,200	Taylor & Francis	2,500	40,000
			CUP	1,300	40,000
			OUP(Scholars)	1,200	20,000
			Palgrave Macmil.	1,200	25,000
			SAGE	600	20,000

#### 4.6 분관 장서의 특성화 추구

서울대학교에는 중앙도서관 외에 7개의 분관이 있다. 분관의 설치 목적은 지리적으로 중앙도서관과 떨어진 대학의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한 것 외에도 해당 대학에 필요한 도서를 집중적으로 구축하여 특성화된 장서를 구축하여 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표 16]은 중앙도서관 소속 7개 분관에서 자관의 특성에 맞는 주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한 통계인데 대부분의 분관에서 분관의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투자한 비용이 50%를 넘지 못하고 기타 다른 주제 분야의 도서 구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분관의 특성화 주제 및 일반주제 구입 현황

분관명	주제(DDC)		분관 주제 구입		일반 주제 구입		분관해당 주제(%)
			종수	금액	종수	금액	
사회과학	300		1,386	122,890,610	2,542	192,216,230	35
경영학	330	650	310	29,331,920	565	38,996,180	35
법학	340		872	102,383,570	1,125	117,801,950	43
농학	630		434	15,377,530	1,069	130,205,190	28
의학/치의학	Q/W		576	70,522,900	980	83,312,000	37
국제학	300	900	231	15,221,090	276	16,651,390	45

물론 분관에서 일반 주제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분관의 설립 목적이 지리적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앙도서관에 소장한 도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분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분관의 특성화된 장서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분관에서 특성화된 도서가 아닌 일반 도서를 구입할 경우 각 분관마다 동일한 도서를 중복으로 구입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분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서 구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도서관의 경우 철저히 복본 도서 구입을 지양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대도서관은 복본 구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표 17] 베스트셀러류 도서 분관 구입 현황

서명	A	B	C	D	E	F	계
엄마를 부탁해	4	2	2	2	6	3	19
나쁜 사마리아인들	4	2	1	5	4	3	19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5	-	-	2	2	1	10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2	-	1	2	2	1	8
만들어진 신	6	1	2	2	4	-	15

[표 17]은 분관과 중앙에서 공통으로 구입한 베스트셀러 류의 도서 중 중복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예시인데 A~F 까지는 각 도서관의 약칭이며 분관별 소장 도서 책 수이다.

일부 인기류 도서에 한정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적게는 8책에서 많게는 거의 20책에 가까운 동일 도서의 복본 소장 현황을 볼 때 분관의 도서 구입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도서 구입 정책에서 상호간 구입 대상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제별 특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내규를 마련하여 복본 구입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준을 수립하여 분관은 특성화된 장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도서관은 기타 주제 분야의 구입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하고 충실한 장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 말

앞서 기술한 서울대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한 수서업무 개선사항을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개발을 위해 모든 사서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장서개발은 수서를 담당하는 사서만의 임무가 아니라 자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서들의 임무이다. 특히 주제 분야의 신간 자료 및 장서 발굴은 연구지원실에서 그리고 각 자료실을 관리하는 사서들은 해당 자료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자료구입 및 선정 지침 등을 상세히 명문화하여 직원과 이용자 모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명문화된 지침과 내규 등은 도서 구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장서의 구축 방향을 설정 해주며 수서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셋째, 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분관 예정 배정 방식을 각 단과대학별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별 장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제별로 특성화된 장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넷째, 외국서 구입 시 Approval Plan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외국서 중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에 대해 Approval Plan을 도입하여 교수들의 Profiling된 자료가 자동 입수되도록 함으로써 신간도서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입수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비도서와 전자책 구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학술 정보도 전자책과 CD, DVD, File, 기타 비도서 형태로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도서 형태의 자료도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가 아닌 비도서 형태로만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도서 등의 자료 구입 예산에 비중을 늘리고 적극적인 자료 발굴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위상은 세계 40위권에 진입 할 만큼 세계적인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서관도 이러한 대학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대학의 핵심 지원 시설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가치는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양과 질, 서비스에 의해 평가된다. 서울대도서관이 대학의 연구 지원 시설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장서의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개선을 통한 학술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의 선정부터 입수까지의 전 과정을 취급하는 수서업무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수서시스템 구축이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